

여수시, 시민·소상공인 각별한 주의 당부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공식 연락처로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구매 및 노쇼 등 사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주요 행사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량 물품 구매를 요청한 뒤 특정 업체의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공공기관 사칭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사칭 사기 사건 60여 건이 발생해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5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6억 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수시청을 사칭한 사례만 13건, 피해액은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수시를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누리집에 사기 예방 안내문과 배너를 게시하는 등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수시와 여수경찰서는 협력해 사기 예방 현수막 설치, 버스 승강장 전광판 홍보, 소상공인협회를 통한 안내, 아파트 단지 방송과 홍보물 배부, 자영업자 대상 현장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사기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 위조된 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행사 준비나 긴급 물품 구매를 이유로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2026여수세계계성박람회

2026 Yosu World Jeongseong Festival

대리구매 사기주의!

노쇼 공공기관 직원 사칭!

믿는 순간, 피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의심하세요!

☒ 단체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반복

☒ ‘공공기관직원’이라며 물품 구매·대리결제 요청

☒ 급하다며 선입금·상품권 요구

☒ 공문·명함을 보내며 계좌입금 요구

☒ 공식 번호연락없이 핸드폰·문자로만 진행

주요사기 수법

“물건을 주문과 동시에 업체 연락처를 주며 대리구매 해주세요!”

“행사 준비 중이라 대신 구매 해주세요!”

“수의계약 한도가 초과되어 대신 계약해주세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 선입금·대리구매 즉시거절!

☒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

☒ 의심 전화, 바로 끊고 확인!

☒ 공문·신분 철저히 확인!

상담 및 신고 112!

여수시

여수경찰서

공공기관 사칭 주의 안내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광양 잡스퀘어 「레디컴퍼니·2기」 운영으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광양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잡스퀘어 교육장(LF스퀘어 광양점 가든동 4층)에서 청년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잡스퀘어 운영사업 「레디컴퍼니+ 2기」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레디컴퍼니+」는 사단법인 광양만권HRD센터(대표 김형권)가 운영하며,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직무 적합성 진단 ▲진로 설계 ▲직무 이해 ▲실습교육을 연계해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NCS 문제 풀이,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공기업 맞춤형 면접 대비, 현직자 특강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무 선호도 검사와 맞춤형 취업로드맵 설계를 통해 참여자의 진로설정을 지원하고, 실전 모의면접과 1:1

/이유빈 기자

곡성 장미공원에서 즐기는 7월의 장미 체험 ‘마크라메 장미 리스’ 참여자 모집

곡성군은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내 장미의 뜰에서 ‘마크라메 장미 리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미공원의 분위기를 담은 체험 콘텐츠로, 방문객들이 직접 리스를 만들며 곡성 장미공원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마크라메는 서양식 매듭 공예로, 우드 틀에 실을 엮어 리스 형태를 만들고, 장미와 리본을 더해 나만의 장미 리스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벽걸이 장식 등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내 ‘장미의 뜰’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체험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모집인원은 일별

/이말규 기자

구례군,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군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마을 이장을 통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도로와 농작업 현장, 하천변 등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업인과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폭염 시간대 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해 기상정보와 행동요령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은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께서는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